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제13-44호 배포일시: 2013.5.15(수) 문의: 영사 김석오(☎: 213-385-9300 내선 70)

제목: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 개최

1. LA 지역 재미동포들 위한 한국 국세청의 세무설명회가 5.23(목) 오후 2시부터 LA 한국교육원 대강당(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 213-386-3112)에서 개최된다.
2.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미국대사관, LA 총영사관, 그리고 남가주한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3. 세무설명회 주제는 ▶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제도 ▶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 신고 방법 ▶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 미국납세자의 해외자산 보고 및 외국금융기관의 IRS(미 국세청)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 보고 등이다.
4.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한국의 세무 회계사, 미국의 세무 변호사가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개별 세무상담이 이어진다.
5. 설명회와 개별 세무상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좌석이 200석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6.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현장에서 설명회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2013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7. 이번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는, 한국에 각종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꼭 알아야 할 양국의 과세제도(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설명과 재미동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117개로 구성되어 있다.
8. 주LA 총영사관의 김석오 영사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 외에 금년부터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 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세무 설명회를 통해 재미 한인들이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 최기호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 보고에 대해 동포들의 관심이 많다”며, “세금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동포들이 이번 설명회 현장에 나와 강의도 듣고 개별 세무상담도 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임> 한·미 세무설명회 초대외 글. 끝.

*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주LA총영사관 김석오 영사(213-385-9300 내선 70번, kimsukoh@gmail.com)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붙임>

초대의 글

한국 국세청의 세무전문가, 한국의 세무 회계사, 미국의 세무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개별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세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 14:00~16:30 : 한·미 양국의 주요 세법 강의
 - 16:30~18:00 : 강사별 개별 세무상담

○ 장소 : LA 한국교육원 대강당

* 주소: 680 Wilshire Pl #200, Los Angeles, CA 90005

* 전화: 213-386-3112

○ 주제 및 강사

주제	강사
한국의 양도소득세제도	국세청 재산세과 이창기 서기관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일중 사무관
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한국 한영(E&Y) 회계법인 정원보 상무이사
미국의 해외자산보고, 상속·증여세 제도 ※ 외국금융기관의 IRS에 대한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 포함	미국 Caplin&Drysdale 법무법인 장인권 세무 변호사

- 2013년판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주미국대사관, 국세청, 주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남가주한인물류협회